

11월 6~7일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서울에서 개최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전문위원회(체어맨 :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인 『한일산업무역회의』가 금년 8회째를 맞아 오는 11월 6(월)~7일(화) 이틀간 COEX 컨벤션센터 3층 310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한일 미래의 공통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시대의 기업전략과 대응방안』, 『한일 양국기업의 상호협력과 제휴를 통한 상생방안』 등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원 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ession I> 『한일미래 공통의 과제 : 저출산시대의 도래와 기업경영』

- ①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대응』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② 『인구감소사회와 기업경영』 原田 泰(하라다 유타카) (주)大和총연 주임이코노미스트
- ③ 『남녀 공동참여를 위한 도시바의 대응』 岩切 貴乃(이와키리 타카노)
(주)도시바 멋진인생&케리아 추진실장

<Session II> 『지금의 한일양국 : 한국의 투자환경 현황과 한일합작 성공사례』

- ① 『한국, 성공의 열쇠』 오웅천 KOTRA 주력산업유치팀장
- ② 『삼성물산 한일합작사례 -한국델라그라스-』 안성락 삼성물산(주) 전자재료사업부 과장
- ③ 『합작으로부터 경영투명화로의 변혁 -사원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Business Mind-』
帶刀 楯夫(오비나타 타테오) 한국요코가와전기 회장 

Contents

한일경제협회 사업

- 02 한중일 환황해 지역 협력사업에 합의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03 일본 호쿠리쿠(北陸)지역과 25개 협력
사업에 합의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04 3천1백만달러 상담 실적 거두고 귀국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특별 기고

- 05 일본시장, 다시 봐야한다
허남정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일본은 지금...

- 06 고용·취업정세를 통해 본 일본의 지역간
격차
- 08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 09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남긴 말
“해보지도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걸 어찌
안단 말인가”
- 10 일본의 지폐

회원동정 & 단신	12
일본의 주요지표	15
2006 주요사업 캘린더	16

한중일 환황해 지역 협력사업에 합의

~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우리나라 서남해(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역과 중국 환황해 연안(北京·天津·上海市, 遼寧·河北·山東·江蘇省)지역 및 일본 규슈(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현, 후쿠오카·키타큐슈시)지역과의 경제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3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지난 9월 19일(화)~9월 22일(금)까지 중국 산둥성 일조시(山東省 日照市)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 우리측: 산업자원부(통상협력국장),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79명
- * 일본측: 규슈경제산업국(경제산업국장), 자치단체,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112명
- * 중국측: 상무부(아주사장)·과학기술부, 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499명

『제6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산업이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동북아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3국 환황해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함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국은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관계, 경제의 보완성 및 신 시장 창출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한 협력 강화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동북아 국가 간 분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체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된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 포럼』을 통해서도 지역 내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여 과학기술혁신, 대학 간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 및 인재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 한국은 KAIST, 배재대, 포항공대 등 12개 대학 24명 참석
- * 일본은 규슈대학 등 13개 대학 40명 참석, 중국은 21개 대학 49명 참석

그 밖에도 에너지 절약,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기업차원의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 『환황해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 동북아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매사절단 파견 등 교역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일본 호쿠리쿠(北陸)지역과 25개 협력사업에 합의

~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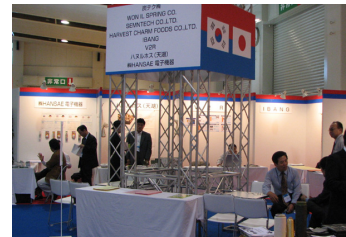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 울산, 강원, 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현)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0월 18일(수)~21일(토) 일본 후쿠이현(福井縣)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자원부 운영선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대구, 울산, 강원, 경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일경제협회,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관련 경제단체, 기업 등 64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호쿠리쿠)측에서는 사토 키이치로(佐藤 樹一郎) 경제산업성 추부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호쿠리쿠지역 3개현 지사·부지사, 관련 경제단체, 기업 등 13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지역 간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 협력, 조사연구 등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3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8개항 25개 협력 사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파트너십 구축 : IT인재 교류의 확대(무역협회), MOU 체결 협력(한일재단), 전시회 참가 홍보(대구시, 울산시), 공항 및 항만 협력(강원도) 등
- * 산업기술협력 : 바이오분야 교류협력(대구테크노파크), Technical Business 전시회 지원(전품연), 산업단지간 무역기술교류(산단공) 등
- * 조사연구 : 국제 물류분야 조사 연구 추진(일측 제안) 등

한편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글로벌 전략하의 대일무역역조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전시·상담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측 국내 전시회인 「호쿠리쿠(北陸)기술교류 테크노페어」 개최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 22개사가 참여하여 ‘한국기업 IR’ ‘전시 및 상담’ 활동을 통해 총 49건 1,360만불의 상담(355만불 성약 가능)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민관합동회의와 별도로 관광분야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 관광분야의 실무자급 분과회를 개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양 지역 간 관광교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우리측 리빙 TV와 일본측 도야마 케이블 TV 간 프로그램 교환에 관한 MOU 체결 조인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국내여행지 및 문화에 대한 12편의 프로그램 교환에서 시작하여 향후 한국문화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회의는 2007년 10월경 한국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천1백만달러 상담 실적 거두고 귀국

~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Security Solution 2006” ~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면서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이, 금번 75차 미션을 15개사 20명으로 구성하여 10월 18일(수)~21일(토)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 파견되었습니다.



금번 미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견본시 『Security Solution 2006』 개최기간에 맞춰 일본 JETRO와 당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는데 동 견본시와 연계하여 전시장내 별도 부스에서 내방객 및 사전 어렌지를 통한 바이어와 1:1 상담회를 갖는 Fair in Fair 형태의 상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기간 동안 69건의 비즈니스상담을 통해 3,132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고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은 오는 12월 6일(수)~9일(토) 일본 치바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되는 『SEMICON Japan 2006』국제전시회와 연계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업을 찾습니다>

- Lotus Notes 시스템 엔지니어 보유한 일본국내 개발가능 기업 -

일본 자스닥에 상장한 일본기업에서 Lotus Notes 시스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일본국내에서의 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자본금 11.8억엔, 종업원 1,400명, IT컨설팅·정보 시스템 수탁 개발·정보 시스템 보수/운용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스닥에 주식 공개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http://www.ikic.co.jp/>).

「Lotus Notes」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찾고 있으며,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Lotus Notes」를 베이스로 한 업무 시스템 개발을 실시하기 위해 체제 구축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Lotus Notes」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일본국내에서의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 계시거나 추천할 기업이 있으시면 우리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특별기고

일본시장, 다시 봐야한다

허남정(許南整)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무더웠던 지난 여름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일본의 어느 공장을 견학한 일이 있었다. 내방객용 슬라이퍼로 갈아 신고 연구실을 둘러보고 내려와 보니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간 신발이 어느새 구두코가 바깥쪽을 향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더니 우리가 마시던 생수는 어느 새 차워지고 대신 그 자리에 새 생수병과 함께 얼음을 가득 채운 컵이 보기에도 시원하게 놓여 있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떠나올 때 그 회사의 임직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단정하게 서서 우리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중국시장 비해 상대적 소홀

고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기뻐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제품을 만들 때 혼을 불어 넣는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이를 ‘모노쓰쿠리(좋은 물건 만들기) 정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제조업 정신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시장에서 미국 차를 몰아냈고 일본제 핵심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우주 탐사선이 하늘을 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일본이 지난 90년대 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저임금에 기초한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는 일본인 특유의 모노쓰쿠리 정신으로 기술 개발에 전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제조기업들의 수익이 향상됐고 이는 설비투자 증가와 소득 순환의 개선으로 이어져 개인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경기 확대가 현재까지 4년 7개월간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만 더 이어지면 (2차 세계대전) 전후 첫 번째의 장기간 경기 확대기였던 지난 1965년 11월에서 1970년 7월까지 4년 9개월에 해당하는 ‘이어나기 경기’를 앞지르게 된다.

우리 재단의 일본연구센터는 이 모노쓰쿠리 정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으며 향후 일본의 다양한 모노쓰쿠리 연구회와 교류하고 국내 산업계에 전파, 접목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 성장의 비결인 모노쓰쿠리 정신을 본받고 체득하는 게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대일무역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거 퇴직이 예상되는 700여만명의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퇴직 기술자들을 우리 제조업 현장에 고문형태로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깝게 지내라고 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한·일간 교역 규모는 724억 달러에 이르며 중국 다음 가는 큰 시장으로 연간 57조엔 규모의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기도 하다.

日 무대진출은 곧 세계 진출

일본 시장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건도 팔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시장이 가까이 있는데 왜 시장을 찾아 먼 곳으로 가는 것일까. 일본 유통구조와 소비구조의 특성상 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세계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과 같다. 그동안 중국시장에 마음이 빼앗겨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본시장을 다시 돌아보자. 노다지가 코 앞에 있다. 

日本은 지금...

고용·취업정세를 통해 본 일본의 지역간 격차

지역간 고용·취업 정세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취업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이 가장 높은 곳은 토카이(東海), 호쿠리쿠(北陸), 칸토(關東)로 세 곳 다 2005년 시점에서 60%전후의 수준이다.<표 1> 한편 취업률이 낮은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킨키(近畿), 시코쿠(四国), 큐슈(九州)로 55% 전후에 머무르고 있어, 가장 높은 토카이(東海)와 가장 낮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사이에는 무려 7.1%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지역간 취업격차는 구조적 요인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90년의 國勢調査, 1997년과 2005년의 노동력조사를 찾아보면, 취업률의 수준은 조사시점에 따라 변화는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든 토카이(東海), 호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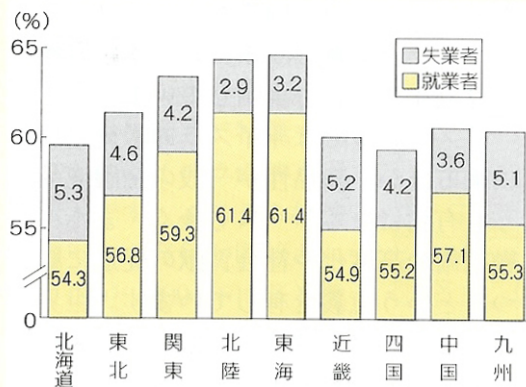
리쿠(北陸)가 가장 높았으며 홋카이도(北海道)와 큐슈(九州)가 가장 낮은 양상은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지역간 취업격차는 단순히 경기의 강세나 재정재건에 따른 공공투자 삭감 등이 원인이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에 뿌리내린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구조적인 취업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취업률이 높은 지역의 특징으로 다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노동수요면의 요인으로서 域外需要比率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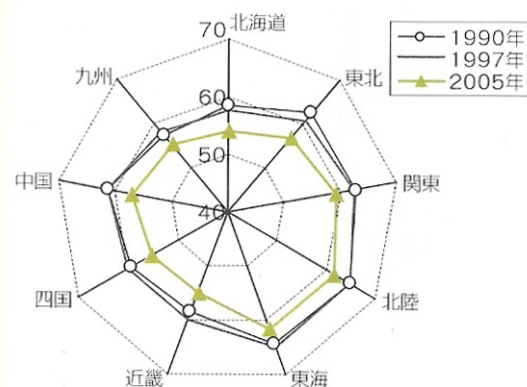
노동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최종수요는 역내수요와 역외수요로 나뉘어진다. 역외수요는 역내의 인구규모 등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취업률

<표 1> 노동력의 구성비 (2005년, 인구비)



(資料) 総務省「労働力調査」

<표 2> 지역별 취업률 (%)



(資料) 総務省「国勢調査」「労働力調査」

을 크게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都道府県으로의 「移出」과 해외로의 「輸出」로 구성된 역외수요는 역내 인구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역외 수요의 확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종수요의 증대를 통해, 역내의 취업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都道府県의 단계에서 취업률과 현내총생산에 차지하는 역외수요비율을 도표화해보면, 양자간에는 완만한 정비례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

두 번째, 노동공급면의 요인으로서, 고령자나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

都道府県마다 여성의 취업률을 세로축으로, 65세 이상의 취업률을 가로축으로 도표화해 봤을 때, 취업률이 높은 都道府県은 대체로 우측 윗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예를 들어, 그래프의 가장 우측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나가노(長野)県은 전국에서 6번째로 취업률이 높은 현이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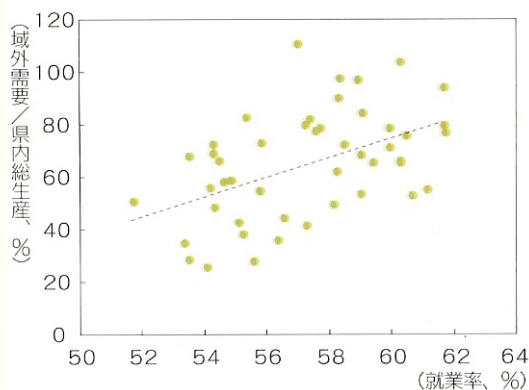
포인트, 여성의 취업률은 6.4% 포인트나 높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취업시간도 전국평균에 비해서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력이 지역경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양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역외수요의 확대를 통한 노동수요의 확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에 의해 역내수요가 축소할 가능성이 염려되는 만큼, 취업률 상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외수요의 확대책으로써는 향후에도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경제 확대가 예상되므로, 공업제품의 수출 진흥이 가장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제관광객의 확대를 통해 역외 서비스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방법이다. 이렇듯,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면서 재정·서비스 수출 등의 역외수요활용을 통해서 산업기반·경제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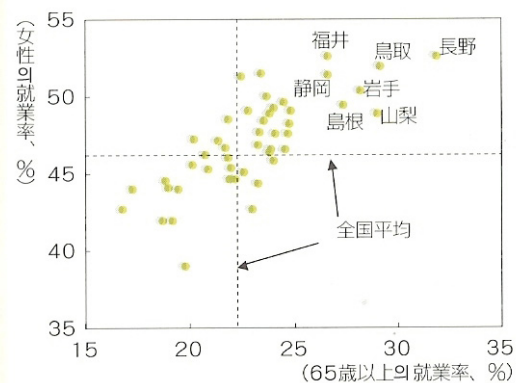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6. 10>

<표 3> 취업률과 域外需要比率
(都道府県기준, 2003년)



(資料) 内閣府「県民経済計算」、総務省「労働力調査」

<표 4> 고령자와 여성의 취업률 (都道府県 기준)



(資料) 総務省「国勢調査」2000年

고령자 고용 현황과 과제

고령자 고용 개선의 조짐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던 고령자 고용에 개선 조짐이 보인다. 2006년 5월 유효구인배율(파트타임을 포함한 상용고용 기준)을 보면, 60~64세는 0.56배로 전과 다름없이 힘든 상황이지만 전년에 비해 개선폭은 0.17% 포인트로 연령평균(0.10% 포인트)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에서는 1.31배로 부족감이 강하고, 전년대비 개선폭도 0.12% 포인트로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 번째로 현역세대의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한편, 경기회복으로 고용수요가 상승한 데에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회복 기간이 올해 5월에 80년대 후반 「버블 경기」를 능가하면서 과잉고용은 해소되고 오히려 인력부족감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현역세대」의 수는 1993년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30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회복세에 있는 고용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고령자에게 노동력의 공급원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 고령자고용의 메리트에 눈뜨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좋은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고령자취업실태조사(2004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용을 늘리는 이유로 70.7%의 기업이 「고령노동자의 경험·능력을 활용하고 싶다」고 대답했으며, 16.4%는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최근 정착률이 낮은 젊은 층과 비교해 볼 때, 일에 대한 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도 있다. 이 조사에서는 6.9%의 기업이 「고령노동자는 정착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이 뒷받침

이러한 고령자고용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인 태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첫 번째로, 이른바 2007년 문제의 영향으로 「단카이 세대」의 퇴직에 의한 인재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현장에서 기능이나 노하우의 단절이 염려되고 있으며 숙련기능을 가진 고령자에 대한 고용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후생노동성 『능력개발기본조사(2005년도)』에 의하면, 2007년 문제에 대한 대처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여 재고용을 실시, 지도자로서 채용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33.8%,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 업무를 위촉하여 재고용 예정」이라고 한 기업이 27.3%를 넘는다.

두 번째로, 2006년 4월에 시행된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올린 스케줄에 맞춰서 정년 연령을 올리고, 계속 고용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현재 기업은 원칙인 62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13년에는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 도입이 기업의 의무가 된다.

고령인재활용을 위한 과제

가장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고령자고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청년고용과의 사이에서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각적인 해결력을 중시하여 기능과 경험이 있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고령자를 낮은 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그들이 퇴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청년층을 제대로 고용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인재에게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가지고 있는 기능·노하우가 전승되도록 구상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두 번째로 고령자고용을 「복지대책」이 아니라, 「경영전략」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시니어인재활용의 진정한 의의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 노동자가 각각 전문분야에 대해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자극을 통해 혁신을 가져오는 「다양성」의 이념이다. 이를테면, 고령자에게는

손님을 접대하는 업무나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면에서 젊은이에게는 없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2000년경에는 전체의 30%인 60세 이상의 소비시장이 2010년에는 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자신이 고령자의 시선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실버제품·서비스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출처 : Monthly Review 2006. 9>

☉ 마츠시타 고노스케(松下 幸之助)가 남긴 말 ☉

“해보지도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걸 어찌 안단 말인가”

벤케이는 힘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과 낫을 비롯한 7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벤케이였기 때문에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들이었다면 7가지를 모두 잘 사용하기는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지식은 이른바 벤케이의 7가지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압도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압도당해버린다면 어찌 할 수가 없죠. 지식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에 압도당한다면 인텔리의 허약함이 드러나 아무것도 개척할 수 없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마츠시타 고노스케(松下 幸之助)의 대표적인 저서 [장사 수척첩(商売心得帖)]이 발행된 것은 1973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이 서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척첩]이기도 하고, 마츠시타의 발안으로 에도나 메이지 시기의 책처럼 일본풍 장정(装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표지 전체를 남색으로 인쇄하고 한 부분을 흰색으로 빼서 거기에 먹으로 타이틀을 넣습니다. 종이는 [신다이지(紙)]라는 일본종이 품의 오돌토돌한 종이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인쇄회사 기술자로부터 이 종으로 넓은 면적을 인쇄하면 얼룩이 저서 종이가 루가 날아 다녀 인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인쇄를 포기하고, 수고스럽고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요곡(謠曲)집처럼 타이틀은 흰 종이에 따로 인쇄해서 남색의 [신다이지]로 만든 표지에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풀로 붙이기 때문에 풀이 마르면 직사각형 종이 둘레에 주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마츠시타에게 보고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방법으로는 해보았나?” “아니오, 안 해봤습니다. 기술자가 무리라고 해서...” 마츠시타의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걸 어찌 안단 말인가!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더라도 지금은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기술은 시시각각 진보하고 있다네”

곧바로 인쇄소로 향해 종이와 인쇄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테스트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얼룩 없이 깨끗하게 인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덕에 제작비용도 싸지고 일정도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마츠시타는 미국의 자동차왕-포드의 [능력 있는 기술자일수록 불가능하다는 이론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들면서, [지식이나 기술에 얽매어서 가능한 것마저 불가능하게 해버린다면, 그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그것이 인텔리의 허약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식은 소중하지만 결코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일본의 지폐 ☉

2004년 11월, 일본에서 20년만에 새로운 지폐(일본은행권)가 발행되었다. 컴퓨터 등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지폐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신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지폐를 만들게 되었다.



위조방지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홀로그램 (1만엔권·오천엔권)

각도를 바꾸면 그림상의 색깔과 모양이 변화합니다.



벚꽃 모양

액면금액

日本銀行의 「日」을
도안화한 마크

● 潛像 (숨겨진 상) 펠 효과 (천엔권)

각도를 바꾸면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펠 효과

정면

잠상효과

● 요판 인쇄 바 패턴

빛에 종이를 비추어 보면 안에 요판 인쇄된 세로 막대가 보입니다.



◎ 일본의 지폐 ◎

새로운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1월. 예전 도안의 지폐는 1984년부터 등장했으니, 정확히 20년만에 도안이 바뀐 셈이다. 새로운 지폐가 발행된 뒤에도 예전 지폐는 변함없이 쓰이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지폐는 전부 19종류가 있다.

일본 지폐에 사용되며 일본을 상징하는 6가지의 모티브는 다음과 같다.



資料提供: 野口英世記念会

■ 野口英世 (노구치 히데오)
【1876년~1928년】

매독의 원인인 균을 배양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균학자. 만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황열병 연구를 위하여 아프리카로 건너가 연구 중, 자신이 황열병에 걸려 순직했습니다.



撮影: 岡田紅英
資料提供: 国立印刷局

■ 후지산과 벚꽃

일본이 자랑하는 명산 '후지산'과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 새로운 천엔권의 뒷면에는 이 두 가지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후지산은 모토스 호수(本栖湖)에서 바라본 전망으로, 이것은 현재 5천엔권의 뒷면에 그려져 있는 후지산과 같은 각도입니다.

■ 樋口一葉 (히구치 이치요)
【1872년~1896년】

'타케쿠라베', '니고리에' 등의 작품을 낳은 메이지 시대의 소설가이자 가인. 24세 약관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당시 여성의 모습이나 의식을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다수 배출하였습니다.



資料提供: 台東区立一葉記念館



資料提供: 横津美術館

■ 카키츠바타즈(재비꽃도)

에도 중기에 활약했던 화가인 오가타 코린(尾形光琳)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가 45~6세경에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인 금병풍에 녹색과 청색의 암화구(岩繪具-광물을 갈아서 만든 화구)만으로 그린 심플하며 상징적인 작품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資料提供: 慶應義塾

■ 福澤諭吉 (후쿠자와 유키치)
【1835년~1901년】

문명개화의 혼란한 시기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 계몽사상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계몽서 '학문을 권함'으로 알려져 있으며, 게이오키주쿠(慶應義塾) 대학의 창시자로서도 유명합니다.

■ 봉황상

세계 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교토부 우치시(宇治市)의 사원 '묘도인(平等院)',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건조물인 봉황당에 장식되어 있는 봉황상(국보)입니다. 봉황당의 낙성은 1053년이므로, 약 천 년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資料提供: 平等院

일본은행이 발행한 「일본은행권」의 도안으로 여성의 초상이 들어간 것은 「樋口一葉(히구치 이치요)」가 처음이다. 그러나明治시대의 정부지폐(정부가 발행하고 있었던 지폐)에는 神功皇后가 사용되었던 바 있다. **KJE**

회원 동정 & 단신

■ **조석래(趙錫來) 회장**은 지난 8월 29 ~31일 일본 아와지성 유메부타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차 한일포럼에 참석했다. 양국의 우호협력증진과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지난 93년 양국 정상 간 한일포럼 지원 합의에 의해 출범한 이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과 일본국제교류센터(이사장 야마모토 타다시)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측 회장은 공로명 전 외무장관, 일본측 회장은 모기 유자부로(茂木 友三郎) 기코망 회장이 맡고 있다.



■ **효성**은 세계 3위 타이어 생산업체인 미국 굿이어사(社)에 앞으로 5~10년간 3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타이어코드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9월 7일 발표했다. 타이어코드 업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효성의 연간 타이어코드 매출(7000억 원)의 4.3배, 효성그룹 연간 전체 매출(5조 원)의 60%에 해당한다. 타이어코드란 자동차 타이어의 형태를 잡아 주고,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타이어를 감싸 주는 보강소재로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레이온 등의 섬유 또는 철(steel)로 만든다.

■ 유엔한국협회 회장인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 회장)은 제61차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1948년 유엔 총회로부터 승인받았고, 1950년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이자 활기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다져진 나라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휴머니즘의 가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은 10월 20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함께 하고,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신규채용인력의 영어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확대’를 건의하였다.



■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은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5회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전경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경단련이 공동 주최하는 본 포럼에서는 한·중·일 3국간 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은 지난 2001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중 개최된 한중일 정상간 회담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경제 교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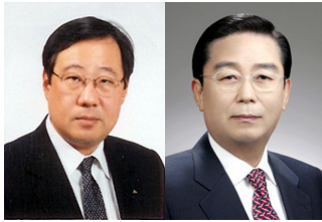


■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신상훈 신한은행장**은



통합 신한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리셉션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가 열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9월 19일 국내·외 금융기관장 등을 초청하여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BNP 파리바그룹의 마이클 페베로 회장,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의 사이토 히로시 은행장 등 국내외 금융기관장 및 정부기관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 류진(柳津) 부회장(풍산 회장), 유상부(劉常夫) 부회장(포스코 고문)은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태평양



연안 6개주가 공동 주최한 ‘한·미 태평양 연안 6개주 비즈니스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10월 15~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술교류와 경제협력의 장’이란 주제로 IT, 에너지,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중우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삼구(朴三求) 부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0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뤼하오차이(羅豪才) 중·한우호협회 회장 일행의 환영 행사를 갖고 한·중의 우호증진과 민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우호협회는 한·중 양국 민간의 선린우호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단체다.

한편, 10월 17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사옥을 방문한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겸 지휘자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와 만나 문화교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운형(李運珩) 부



회장(세아제강 회장)은 9월 25일 합동연석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현재의 환율동향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대국회 건의를 하기로 했다.

■ 9월 3일 한국무역협회는 “산하 사업별 위원회를 5개 상설위와 6개 특별위 등 11개 (중전 5개)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은

상설위원회인 무역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류진(柳津) 부회장(풍산 회장)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에,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또 설원봉(薛元鳳) 부회장(대한제당 회장)은 특별위원회 무역인력양성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한국 화학산업의 새로운 도전은 컨버전스(Convergence)와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의 실현이다.” 성재갑(成在甲) 부회장(LG석유화학 고문,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회장)은



10월 27일 한국화학공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초청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생명과학·정보전자 시대의 주력산업으로써 화학산업이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도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부회장(대한상의 회장, CJ 회장)은 8월 30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양수길)이 주최하는 제 533회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전망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HSBC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손경식 이사장)은 10월 25일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사업’ 협약식을 갖고 환경경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롯데의 미래는 IT를 활용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IT기반의 SCM(공급망관리) 향상과 멤버십서비스에 기반을 둔 고객만족 최적화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ABC(아시아경영자협의회)에서 **신동빈(辛東彬) 부회장**(롯데그룹 부회장)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롯데 유통계열사의 부분 효율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ABC포럼은 아시아지역 기업인들의 상호 협력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경영자급 모임으로 신 부회장은 유일한 한국인 이사다.



■ 타임(TIME)지가 선정하는 ‘타임 리더스 트래블 초이스 어워드(TIME Readers Travel Choice Award)’에서 대한항공이 올해 ‘퍼스트 및 비즈니스 클래스 부문’과 ‘마일리지 프로그램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가 ‘타임 리더스 트래블 초이스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은 “비빔국수와 같은 새로운 기내식 메뉴를 개발하고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장착 등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him@kjc.or.kr
홍소영 사원	02-3014-9888 syhong@kjc.or.kr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지난 9월 17일 서울재팬클럽(SJC)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주최한 제4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본선에 출전, ‘居酒屋『花いちもんめ』’라는 곡으로 SJC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28팀이 본선에 진출(한국측 14팀, 일본



측 14팀) 하였으며, 한국측은 일본 노래를, 일본측은 한국 노래를 불러 한일 양국간 음악을 통한 교류와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무국은 임직원간 친목도모를 위해 마라톤 동호회와 산악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관악산 등정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2006



10km에 출전하여 전원 완주함으로써 동료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휠라 가족사랑 마라톤대회에 5명이 하프코스



☞ 일본의 주요지표 ☞

항목	명목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경기동향지수		기업도산건수	국내기업물가지수 (국내총평균)		
단위	전기대비연율	전기대비연율	先行DI	一致DI	2000년 =100	전년대비		
	%	%	%	%	건		%	
2003년	0.2	1.8	2003년	—	16,255	94.9	-0.8	
2004년	1.1	2.3	2004년	—	13,679	96.1	1.3	
2005년	p 1.3	p 2.6	2005년	—	12,998	97.7	1.7	
02년 10~12월	-0.4	1.6	2005년 6월	58.3	100.0	1,207	97.3	1.4
03년 1~ 3월	-2.7	-0.9	7월	66.7	45.5	1,024	98.0	1.6
4~ 6월	3.1	2.7	8월	100.0	77.3	1,152	98.2	1.8
7~ 9월	1.1	2.3	9월	41.7	63.6	987	98.4	1.8
10~12월	2.4	6.5	10월	66.7	81.8	1,171	98.7	2.1
04년 1~ 3월	3.0	3.3	11월	50.0	63.6	1,114	98.7	2.0
4~ 6월	-2.8	-1.8	12월	66.7	90.9	1,149	98.9	2.3
7~ 9월	1.2	1.4	2006년 1월	79.2	77.3	1,049	99.0	2.7
10~12월	-1.0	-0.8	2월	83.3	45.5	1,044	99.4	3.0
05년 1~ 3월	2.9	5.7	3월	50.0	9.1	1,255	99.4	2.7
4~ 6월	p 2.8	p 4.5	4월	50.0	81.8	1,087	99.9	2.5
7~ 9월	p 0.8	p 1.8	5월	79.2	81.8	1,083	100.6	3.3
10~12월	p 2.5	p 4.0	6월	58.3	90.9	1,111	100.5	3.3
06년 1~ 3월	p 2.2	p 3.3	7월	p 27.3	p 75.0	1,051	101.3	3.4
4~ 6월	p 1.3	p 1.0	8월	p 20.0	p 77.8	1,169	p101.5	3.4
7~ 9월	..	..	9월	..	..	..	..	..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생선식품 제외 총합)		광공업생산지수		기계수주(선박·전력 제외) 민수	신설주택착공	소비지출 (전세대)	대형소매점 판매액	승용차판매대수(보통·소형·경차)
단위	2005년 =100	전년대비	季調 2000년 =100	전년대비	季調, 전년대비	未季調	전년대비	점포조정필 전년대비	
		%		%	%	戸	%	%	대
2003년	100.2	-0.3	95.0	3.3	10.7	1,160,083	-1.3	-3.2	4,715,920
2004년	100.1	-0.1	100.2	5.5	4.4	1,189,049	1.4	-3.5	4,768,131
2005년	100.0	-0.1	101.3	1.1	7.1	1,236,175	-0.8	-2.3	4,748,409
2005년 6월	100.0	-0.2	100.8	-0.1	7.2	109,184	0.4	-1.9	417,466
7월	99.9	-0.2	99.9	-0.9	-1.3	115,343	-2.6	-1.7	422,354
8월	100.0	-0.1	100.9	1.0	6.0	109,199	0.4	-2.9	290,795
9월	100.2	-0.1	101.1	0.2	-6.7	108,086	1.1	-2.8	457,952
10월	100.3	0.0	101.6	0.5	2.9	115,822	1.1	-3.4	344,597
11월	100.0	0.1	103.6	2.0	1.9	110,986	-1.5	-0.8	365,572
12월	100.0	0.1	104.9	1.3	4.1	97,932	0.1	0.6	325,744
2006년 1월	99.7	-0.1	104.8	-0.1	-2.8	92,899	-2.5	-2.8	325,364
2월	99.5	0.0	103.5	-1.2	1.5	96,995	-1.1	-1.9	443,493
3월	99.9	0.1	103.7	0.2	-5.2	94,318	-1.9	-0.3	688,234
4월	100.0	-0.1	105.1	1.4	10.8	111,260	-1.6	-0.9	312,842
5월	100.2	0.0	103.7	-1.3	-2.1	108,652	-1.2	-1.6	322,707
6월	100.2	0.2	105.9	2.1	8.5	114,331	-1.1	-1.2	405,768
7월	100.1	0.2	104.9	-0.9	-16.7	106,649	-0.8	-1.4	396,266
8월	100.3	0.3	p 106.9	1.9	6.7	111,187	-3.3	p 0.1	283,446
9월	..	..	..	..	..	..	..	..	pr 438,105

항목	조정외노동시간 (전산업)	완전실업률	유효구인배율	경상수지 (IMF방식)	무역·서비스 수지	자본수지	무역액(주간베이스)	
단위	시간	季調	季調	억엔	억엔	억엔	수출	수입
2003년	10.0	5.3	0.64	157,668	83,553	77,341	545,484	443,620
2004년	10.3	4.7	0.83	186,184	101,961	17,370	611,700	492,166
2005년	10.4	4.4	0.95	p 182,591	p 76,930	p-140,068	656,565	569,494
2005년 6월	10.2	4.2	0.96	10,950	7,592	-11,051	54,782	46,199
7월	10.3	4.4	0.97	16,899	7,384	-18,208	55,368	46,748
8월	10.0	4.3	0.97	12,086	356	-4,947	52,200	51,174
9월	10.2	4.3	0.97	18,507	8,541	-10,406	59,271	49,785
10월	10.5	4.5	0.98	14,399	6,556	-8,067	59,106	50,927
11월	10.7	4.5	0.99	14,451	5,698	-9,886	59,136	53,192
12월	11.1	4.4	1.03	18,696	8,965	-17,789	63,371	54,288
2006년 1월	10.3	4.5	1.03	7,974	-2,976	-15,257	50,083	53,619
2월	10.5	4.1	1.04	23,051	10,116	-15,106	58,495	49,027
3월	10.9	4.1	1.01	24,223	11,250	-15,058	68,155	58,477
4월	11.1	4.1	1.04	r 12,219	r 3,003	r -2,759	61,289	54,791
5월	10.3	4.0	1.07	r 16,273	r 4,133	r -17,652	57,037	53,227
6월	10.5	4.2	1.08	r 10,245	r 6,581	r -1,941	62,709	54,655
7월	10.6	4.1	1.09	p 18,096	p 6,767	p -12,504	63,212	54,630
8월	p 10.1	4.1	1.08	p 14,769	p 1,769	p -7,003	61,413	p 59,453
9월	..	..	..	..	..	..	..	..

(출처) 내각부, 일본은행, 동경상공리서치, 총무성통계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후생노동성, 재무성 (주) p는 속보, r는 정정. GDP성장률은 실질지의 산정을 연쇄방식에 의해 변경. 소비자지출은 전세대(농림어가세대를 포함)의 수치. 조정외노동시간은 사업소규모 5인 이상

📖 2006년도 한일경제협력 주요사업 Calendar 📖

월	일 자	행 사 내 용	지 역
1	17(화)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사전회의 개최	한국 서울
2	8(월)~10(수)	제8회 한·일(큐슈)산업기술교류미션 유치	한국 서울
	9(화)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한국 서울
	9(화)~13(월)	제6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파견	일본 도쿄
	17(금)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의 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
	17(금)	지식산업기술연수 평가회 개최	한국 서울
	20(월)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 서울
	22(수)	한일재계인사 간담회 개최	일본 도쿄
4	10(월)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17(월)~29(토)	경영관리연수 파견(20명)	일본 도쿄
5	25(목)~27(토)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최	일본 삿포로
	5월~9월	생산성단기컨설팅(고문매칭) 실시(10사)	한국
6	21(수)~23(금)	제6회 한일부품소재상호보호완상당회 파견(20사)	일본 도쿄
	25(일)~7/8(토)	품질관리연수 파견(30명)	일본 오이시
7	11(화)~14(금)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사가
	15(일)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23(일)~29(토)	차세대경영자교류단 파견(15명)	일본 도쿄
	24(월)~11/11(토)	지식산업기술연수 파견(30명, 111일간)	일본
8	4(금)~8(화)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유치	한국 서울
9	5(화)~8(금)	2006 NEAR IN 도야마 전시회 파견(10사)	일본 도야마
	25(월)~29(금)	전자기술상당회 파견	일본 도쿄, 후쿠오카
	19(화)~22(금)	제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중국日照市
10	18(수)~21(토)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일본 후쿠이현
	18(수)~21(토)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도쿄
	18(수)~20(금)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 개최	중국 장춘시
	24(화)~28(토)	아시아산업기술페어 전시회 파견(19사)	일본 기타큐슈
	31(화)	제7회 한일부품소재상호보호완상당회 유치(23사)	한국 서울
11	1(수)	한일산업협력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 서울
	4(토)	주한일본대사 초청 골프행사 개최	한국 서울
	6(월)~7(화)	제8회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 서울
	10(금)	지식산업기술연수 수료식 & 보고회 개최	일본
	17(금)	생산성향상단기컨설팅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 서울
	27(월)~12/1(금)	제20회 한일산업기술교류미션 파견(30사)	일본 도쿄
12	6(수)~9(토)	제76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치바
	10(일)~23(토)	이공계산업기술캠프 파견(12명)	일본 나고야 등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주한일본특파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 서울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	한국 서울